

에너지 절약하고 이웃돕고 '1석2조'

전주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억3300만원 지급 중 713만원 연탄은행 기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전주 시민들이 적립한 인센티브가 에너지 소비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전주시는 탄소포인트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기부를 희망하는 593세대의 인센티브 713만원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연탄은행에 기부됐다고 27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학교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

한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탄소포인트에 가입한 인센티브 기부희망 세대들이 지난 상반기(1~6월) 중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발생한 인센티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능했다.

기부금은 전주연탄은행의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보급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발생한 인센티브 중 기부를 원하거나 지급계좌가 불분명해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연탄은행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기부해오고 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을 절약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해온 11,927세대에 대해 세대당 평균 1만400원 총 1억3300여만원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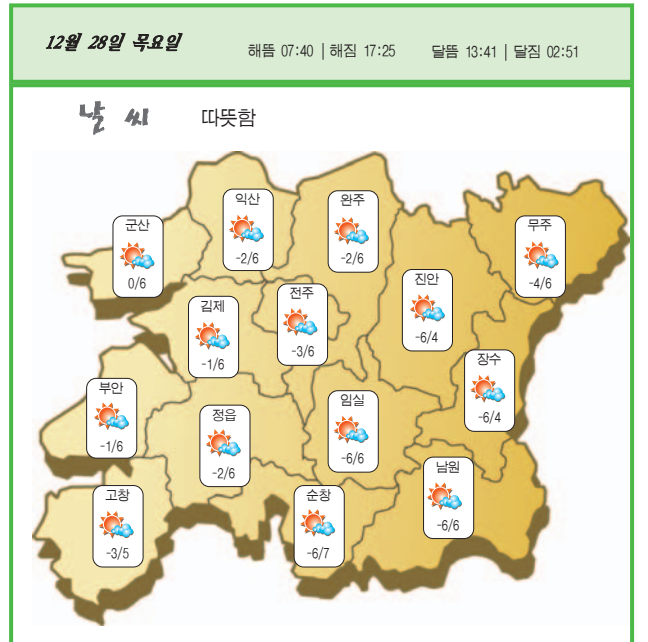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가 지난 상반기 동안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약을 통해 줄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약 5,964톤에 달하며 이는 20년생 소나무(평균)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약 3.5kg)으로 환산했을 때 170만4000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필수입력)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그 동안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약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온실가스도 줄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 효천초교 설립 승인

2020년 개교 예상... 군산동산중 이전은 조건부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전주 효천 도시개발 구역 내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승인(적정), 군산동산중 신설 대체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27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은 대단위 공동주택을 포함한 4,512세대의 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준비를 해왔다.

이번 학교설립계획 승인으로 이후 설계공모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0년 3월 개교가 예상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곡동을 비롯한 수송동, 미장동 등 신도심지역 학생

의 51%만 인근 3개 중학교로 배정되고, 나머지 49%의 학생은 원거리 중학교로 배정되어 매년 학부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군산시 중학교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지역인 금동에 위치한 군산동산중학교를 신도심지역인 지곡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군산동산중학교를 이전대상학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학교위치 재검토)을 통보받아, 군산시 중학교 균형 발전 및 원도심지역 통학불편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공사립 유치원 돌봄교실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 40개 공사립 유치원 돌봄교실을 지원한다. 지역 돌봄교실 29개, 온종일 11개원이다.

27일 전북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공사립 유치원의 공모를 받아 온종일 돌봄교실(아침 7시~저녁10시) 11개원, 저녁 돌봄교실(오후5시~밤8시) 29개원 가량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유치원에 대해선 돌봄교실은 2천5백만원, 온종일 돌봄교실은 4,250만원(지자체 1,250만원 지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돌봄교실 전담인력을 갖춰야 하며 학부모를 동반한 귀가 조치 등 안전과 양질의 급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27일 연말을 맞아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에 100만원을 후원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연말연시 '사랑의 온도탑' 후끈

엄마의 밥상 후원금 기탁 등 이웃사랑 나눔실천 손길 이어져

저물어가는 한해를 보내며 이웃사랑 나눔실천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국제의료협력단(이사장 이동휘)에서는 27일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국제의료협력단 윤용순 사무

총장은 시장실을 방문하여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국제의료협력단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의료봉사 및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과 함께 국내 의료봉사와 장학금 지원 등 이웃을 향한 나눔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

하고 있는 NGO 단체이다.

또한, 같은날 덕진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일동이 심시일반 모은 성금을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하였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회장 김정철)에서 연말을 맞아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에 100만원을 후원했다.

99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도성회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엄마의 밥상에 후원금을 기탁해 왔다.

김정철 도성회 회장은 "우리 주변의 아동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이웃사랑 나눔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기업)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 01 국민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 03 해외 구호활동 4,879,359,901
-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